

업매이지 않는 자유를 향한 선율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자유’

2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 협연



홍석원

5대 바이올린 협주곡 거장으로 꼽히는 시벨리우스와 러시아 대표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곡이 재해석되는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전남

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제365회 정기연주회 ‘자유’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와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선보인다.

광주시향의 이번 연주회는 어떠한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갈망한 작곡가의 곡들을 재해석하는 무대다.

시벨리우스는 애국적인 교향시 ‘핀란드어’로 유명한 핀란드 국민 작곡가이자 6번의 교향곡과 다수의 교향시를 발표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던 그는 단 한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겼다. 이 시기는 작곡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다. 건강이 좋지 못해 가족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방황하던 상황 속에 태어난 음악이다.

러시아 대표 작곡가 프로코피예프는 2차 세



광주시향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계대전 시기 일종의 자유를 향한 작곡가의 내적 고백을 담은 ‘5번 교향곡’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의 환호와 힘, 관대함, 순수한 영혼을 노래하고자 했다.

이번 연주회의 문을 여는 곡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다. 젊은 시절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이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 표현과 다채로운 기교들로 화려한 연주 효과가 뛰어난 작품이다. 특유의 오묘하고 강력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협주곡으로 2021년 통영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이 협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은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 등의 평을 받았다. 대관영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콩쿠르 우승 및 협연, 음악춘추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입상,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프로코피예프는 두 번의 전쟁과 혁명에 휘말렸던 자신의 극적인 생애를 7곡의 교향곡에 담았다.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작곡한 교향곡 5번은 프로코피예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프로코피예프가 그 생애에서 작곡한 가장 훌륭한 작품이며 소위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서정적, 서사적 교향곡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현대음악의 백미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 근현대 패션·문화 조명

문화재단 ‘광주학 콜로키움’

호남대 김지연 교수 발제

1970~1980년 당시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떤 옷들을 선호하며 살았는지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이 열린다.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두 달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광주문화재단 ‘2022 광주학 콜로키움-광주 근현대 패션과 문화’다.

‘광주학 콜로키움’은 70~80년대 지역 패션

계에서 역동적 활동을 펼친 주요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근현대 패션과 문화’에 대해서 조명할 계획이다.

19일 첫 토론의 주제는 ‘광주학 패션의 발자취:근현대부터 미래까지’다.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김지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1910년부터 1990년까지 광주패션계의 발자취와 주요 인물을 살펴보고 미래 광주패션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후 ▲8월 2일 변지유 ‘변지유 부티크’ 대표 디자이너 ▲8월 24일 박우근 광주한복복합동조합 대표 ▲9월 7일 전병원 명장(대한민국 제58호 패션디자이너) ▲9월 21일 간문자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광주학 콜로키움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문체부, ‘공간문화대상’ 공모

대상 300만원...8월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8월 29일까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자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 및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9월 말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이다.

이 중 우수상은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좋은 장소로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 인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홈페이지(www.goodplac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수상작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ACC재단 교구재 아시아 문화상자.

/ACC재단 제공

ACC재단 문화다양성 교구재 보급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기부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역 아동의 문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교구재를 보급하고 아동도서를 기부했다.

18일 ACC재단에 따르면 문화다양성 교구재 ‘아시아 문화상자’를 광주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67개교에 130여개를 보급했다.

‘아시아 문화상자’는 ACC재단이 자체 개발한 모듬형 교구재다.

아시아 5개 권역의 의복, 놀이기구, 악기 등 실물자료로 구성돼 생활문화를 놀이로 체험하

면서 문화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구 콘텐츠다.

이와 함께 ACC재단은 지난 13일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림책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420여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도서는 지난 5월 어린이가족 문화축제(How Fun8)의 하나로 진행된 자발적 도서교환 캠페인 ‘나눔책장’을 통해 수집했다. 이 캠페인에는 ACC재단 임직원과 어린이 문화원 프로그램 이용객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도서는 광주 전역의 지역아동센터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목포(갑)	010-3272-2765
목포(을)	010-3635-6777
여수지사	010-8648-1236
순천지사	010-2547-7890
나주(갑)	010-7706-2410
나주(을)	010-3713-7458
담양지사	010-8004-9885
곡성지사	010-6764-6100
구례지사	010-6636-3039
고흥지사	010-9151-2828
화순지사	010-3100-0386

장흥지사	010-3613-6114
강진지사	010-6646-1241
해남지사	010-8181-2627
영암지사	010-4624-8409
무안지사	010-3621-8989
함평지사	010-3600-0500
영광지사	010-8666-2882
장성지사	010-3666-1300
완도지사	010-5619-7020
진도지사	010-3624-4777
신안지사	010-4627-1472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